



▲ 경기도 수원역은 서울과 남부를 잇는 교통 요충지로 하루 평균 수만 명이 오가는 곳이다. 2006년 3월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수원역 파룬궁 진상 알리기 거점은 비바람 속에서 자리를 지키며 오가는 시민들에게 진상을 전하고 있다. 이곳은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세속의 이익을 넘어선 가치관, 즉 진리에 대한 믿음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34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009만 1684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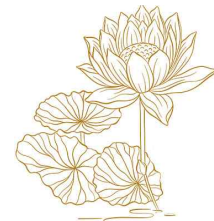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85期(2026.04.10) WWW.MINGHUI.ORG

한글판 1049호 minghui.or.kr



▲ 3월 29일 호주 멜버른의 전통 부촌 호손에서 열린 커뮤니티 축제에서 서막을 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천국악단.

주요 내용

【수련】 법을 실증하는 것을 기점으로 원고모집에 참여하다

【수련】 '4·25' 당시 우리는 창안가에 있었다

【수련】 중생을 포기하지 말라

【수련】 자아를 내려놓고 법 중에서 자신을 바로잡다

【평론】 사람에게 바른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사소한 일인가?

〈목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9

■ 수련교류

법을 실증하는 것을 기점으로 원고모집에 참여하다 12

‘4·25’ 당시 우리는 창안가에 있었다 14

중생을 포기하지 말라 20

자아를 내려놓고 법 중에서 자신을 바로잡다 22

‘전법륜’을 읽고 17년 된 장애 다리가 회복되다 32

자아를 실증하려는 마음과 과시심을 직시하고 법 안에서 바로잡다 .. 36

법 필사 과정에서 승화하다 41

수련생을 보며 자신을 수련하다 47

■ 시사평론

사람에게 바른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사소한 일인가? 55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출까지 자행하고 있다.

권력자들은 손에 쥔 권력의 지팡이가 땅과 몸을 통치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신앙을 진정으로 통치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선의公安, 검찰, 법원 직원은 사람에게 바른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살인과 같으며 큰 악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데 가담한 수많은 집행자가 잇달아 크고 작은 현세의 응보를 받거나 자손에게까지 응보가 미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에 대한 징계인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고다. ‘법은 다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을 속이고 남을 기만하는 환상일 뿐이다. 역사를 거울삼아 선한 마음을 지키고 ‘사람 피를 묻힌 찰빵(人血饅頭)’을 먹지 않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진정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

도 빠르게 무너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고 정신적인 연결을 맺기가 매우 어려워지며,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서로를 가까운 적으로 여기고 속고 속이며 서로를 해치는 일이 끊이지 않게 된다. 이는 건강한 사회에 대한 살인에 해당한다.

바른 믿음이 인생, 인류, 사회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에 역사상 수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다. 로마 제국이 300년에 걸쳐 기독교인을 잔혹하게 박해해 무수한 순교자를 낳은 것 외에도, 근대에는 티베트 불교 신자들 또한 가혹한 신앙 탄압을 겪었다. 많은 사원이 폐쇄되거나 철거됐고 승려들은 강제로 환속됐으며 종교 활동은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 일부 승려는 바른 믿음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구금되거나 강제로 사상 개조를 받아야 했다. 많은 티베트인이 대대로 이어온 신앙 전통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고향을 떠났다. 이러한 사건들은 마찬가지로 정권이 한 집단의 신앙을 파괴하려 할 때, 그 피해가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화와 민족의 정신적 뿌리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맺음말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일 뿐만 아니라 심신 건강과 인격의 완전함을 지키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중국은 기독교인과 불교 신자를 박해했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거짓말로 파룬따파를 사교로 모함하고, 구금, 고문, 실형 선고, 반복적인 자택 방문 괴롭힘, 생계 단절 등의 수단으로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자신을 저버리고 바른 믿음을 배반하는 전향서 등 수련 포기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며 심지어 장

▮ 해외 종합 ▮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2026년 3월 하순, 선원예술단 8개 팀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페인에서 계속해서 공연을 펼치며 현지 주류 사회 관객들을 끌어모았다. 미국과 캐나다 정계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선원에 축하를 보냈고, 미국 시카고 로즈몬트 시장 브래들리 스티븐스는 10년 연속 축하 서한을 보냈다. 올해 서한에서 그는 “로즈몬트가 선원의 20주년 축하에 함께할 수 있어 각별히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밝혔다.

스페인의 역사 명도시 세비야 공연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수많은 문화계 인사와 극장 경영진이 관람하러 왔다. 극장 공연 현장에서 관객들은 전형적인 ‘스페인식 열정’을 보이며 수시로 감탄과 웃음을 터뜨렸다. 공연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기립해 큰 박수를 치며 “브라보”를 외쳤고, 선원 예술가들은 여러 차례 연속해서 무대 인사를 했다. 카르투하 예술센터의 극장장은 진정한 전통 중국을 목격할 수 있어 깊은 영광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선원이 세비야에서 계속 공연하기를 희망했다. 명혜망에 따르면 2026년 시즌에 스페인에서는 70여 명의 각급 정계 인사들이 공연을 관람했으며, 스페인 소피아 왕비 역시 선원 공연의 성공을 기원했다.

2026년 3월 25일 저녁, 미국 뉴욕시에서 선원 공연을 관람한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제임스 린지 박사는 공연이 공산주의 이전의 아름다운 중국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여러분은 그 역사(공산주의 이전의 중국)를 볼 수 있고, 고전무용과 민족무용을 볼 수 있으며, 중국공산당(중공)이 장악하기 이전의 중국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박해를 볼 수 있고, 중공이 들어온 후

이런 전통문화를 저지하고 파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린지 박사는 말했다. “공연 전체의 메시지는 희망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어선 안 되며, 절대 포기해선 안 됩니다. 이야기 속에 나타난 잔혹한 박해 속에서도, 중공과 같은 독재 정권에 직면해서도 여전히 희망은 존재합니다. 언제나 희망은 존재하고 언제나 아름다움이 존재하며, 이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노력해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는 또 선원 공연에 대한 중공의 방해와 위협은 전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나아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그들(중공)은 이 공연을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중공의 통제를 받지 않는 중국에 관한 정보를 보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있어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전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공연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용감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호주에서는 중공이 호주 총리에게 폭탄 위협을 가하며 선원 공연을 방해하려 시도했으나, 결국 오히려 더 많은 호주 정계 엘리트들이 명성을 듣고 관람하러 오게 만들었다. 올해 시드니 공연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의원, 10여 명의 시드니 시의원 및 각계 사회 엘리트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전통문화는 넓고 심오하며, 지극히 풍부한 내포와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호주 일반의 그레고리 오는 중국계로, 선원 공연을 관람한 후 이번에 특별히 가족들을 데리고 온 것은 그들이 진정한 중국 전통문화를 보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는 많은 중국 문화가 사실 공산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보길 바랍니다.” 그는 또한 이전에 선원예술단이 해외에서 압력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것이 사실 제가 오늘 공연을 보러 온 한 가

사람의 영성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다. 바른 믿음은 사람이 영성을 유지하고 정신적 귀착지를 찾으며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심신 승화는 당사자에게 있어 어떤 세속적 체험보다도 더 진실한 경험이다. 한 사람이 자신이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바른 믿음을 강제로 저버리게 될 때, 그 상처는 결코 ‘생각을 바꾸는 것’이나 ‘의식을 바꾸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첫째, 자아에 대한 고차원적 인식의 부정이다. 바른 믿음은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와 직결된다. 외부의 힘이 한 사람에게 이러한 신념을 부정하도록 강요할 때 이는 진정한 자신을 배반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으며, 사람을 강렬한 상실감, 공허감, 자기 의심 속으로 몰아넣는다. 나아가 내면에 모순과 불안을 야기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행동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는 정신적 차원의 살인에 해당한다.

둘째, 자기혐오와 죄책감을 유발한다. 폭력과 강권 아래 마음속의 신, 진리, 고차원의 자아를 배반하고 세속적 차원에서 선악과 시비의 준칙을 잃게 되면 사람에게 강렬한 죄악감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신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자신을 ‘배도자(背道者)’나 ‘겁쟁이’로 여기게 되며, 이러한 도덕적 오점은 종종 평생을 따라다닌다. 이는 불안, 우울,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과 같은 장기적인 심리적 외상을 유발해 심신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는 만성적인 살인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신력의 붕괴다. 가장 신성한 신념마저 폭력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을 때 공신력은 권력과 금전으로 대체되며, 인간이 타인, 사회 정의, 심지어 인간 본성에 대해 갖는 신뢰

기 90년대 중국에서 일어난 진선인(眞·善·忍)을 핵심 가치로 하는 심신 수련법으로 느리고 부드러운 다섯 가지 공법과 도덕 향상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의 도덕성과 평화, 비폭력을 강조하며 단기간에 많은 대중이 수련에 입문하게 함으로써, 중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정신적 신앙 집단이 됐다.

진선인을 믿는 많은 파룬궁수련자는 불의한 것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하는 도덕적 굳건함을 보여준다. 이로써 사회 속에서 신뢰와 선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 오늘날 사회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는 실례다.

둘째, 바른 믿음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사람이 좌절, 상실, 질병, 죽음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내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쉽게 생겨난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고난을 단련이나 시험으로 여겨 생명의 강인함, 선한 본성, 포용력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은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많은 사람이 명예와 이익을 다투는 수많은 풍파를 겪고 나서 덧없음과 공허함을 느끼며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되돌아보기 시작한다. 바른 믿음은 사람을 더욱 크고 높은 맥락 속에 두게 하여, 타인을 이롭게 하든 진리를 추구하든 어떤 신념을 실현하든 간에 삶이 더 이상 하루하루의 반복에 그치지 않게 하며, 짧은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영원한 의미를 얻게 한다.

사람에게 바른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영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지 이유이기도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나서서 지지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마땅히 자유를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는 공연이 보여준 가치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화, 평화, 선량함, 이것들은 모두 인류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선원이 예술 형태를 통해 이러한 이념을 전달함으로써 “세상이 여전히 선의로 가득 차 있고, 주변에 여전히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라고 생각했다.

월 29일 호주 멜버른의 전통 부촌 호손의 유명 상가 거리인 글렌페리는 매우 북적였다. 이곳에서 거리 이름을 딴 성대한 커뮤니티 축제가 열린 가운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단체의 공연이 축제의 서막을 열며 큰 주목을 받았다.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 주최 측은 당일 각 단체의 공연 일정을 예고했다. 그중 천국악단이 메인 무대의 오프닝 공연 단체였고, 특별 공연 구역에서는 파룬따파 공법 시연과 요고(腰鼓)팀의 공연이 배정됐다. 당일 메인 무대 공연이 끝난 후 천국악단은 주최 측의 초청을 받아 축제 메인 도로에서 퍼레이드를 펼쳤다. 천국악단의 웅장하고 힘차며 리듬감이 뚜렷한 감동적인 선율은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파룬따파 요고팀의 훌륭한 공연은 축제에 떠들썩하고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파룬따파 부스 또한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았고,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으며 일부 시민들은 현장에서 공법을 배웠다. 보건 및 안전 관리 분야에서 일하는 그레이엄 (Graham) 은 처음으로 현지의 이 성대한 행사를 즐기러 왔다가 파룬궁 부스 앞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녀는 “이전에 파룬궁에 대해 들어봤고 중국에서 불공

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 처음으로 파룬궁수련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침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라며 “독재 정부가 단지 신앙을 이유로 자국의 선량한 시민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진선인의 이념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제 마음속으로도 이러한 가치관에 매우 동의하기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런 이념을 따른다면 세상은 틀림없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가부좌에 관심이 있던 그녀는 집 근처에 파룬궁연공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하며 “파룬궁의 가부좌 공법을 시도해 진정한 내면의 평온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대만 남부 5개 현과 시에서 온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2026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중화텔레콤 연수원 가오슝 지소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법공부 교류 행사를 가졌다. 18개 조로 나뉘어 법공부를 하고 수련 체득을 교류했으며, 일상 수련 중 모순 속에서 어떻게 안으로 찾고 흥법하며 진상을 알렸는지, 그리고 심성을 제고한 경험을 나누었다. 둘째 날(3월 29일) 이른 아침 체육관에서 단체 연공을 했고, 오후에는 대형 그룹 법공부를 진행했다. 아울러 선원 다큐멘터리 ‘언브로큰: 선원, 꺾이지 않는 용기의 무대’를 관람했다. 국영 기업에서 근무했던 황 씨는 직장 생활과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선 경험을 공유했다. 퇴직 전 그는 지나친 걱정으로 승진 기회를 놓쳤고, 원래 부서에 남아 관리자 업무를 맡으며 과중한 업무량을 감당해야 했다. 그는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직접 처리하며 책임을 다했다. 그는 당시 많은 동료가 자신이 작성한 프로젝트를 가져가 실행해 최고 직급으로 순조롭게 승진했지만 정작 자신은 발탁되지 않아 강한 상실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수

시사평론

사람에게 바른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사소한 일인가?

글/ 기혜(起慧)

[명혜망] 바른 믿음은 개인에게 있어 단순한 정신적 의지처에 그치지 않으며, 내면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이루는 근본적인 토대다. 유희와 타락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은 개인에게 안정적인 지지점을 제공해, 곤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방향 속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한다. 굳건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강제로 포기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의 정신을 잔인하게 짓밟는 행위다. 정신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신 건강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른 믿음’을 다양한 배경의 신앙과 구별하는 이유는, 오늘날 사회의 많은 신앙은 무신론, 현대적 관념, 현대 과학의 산물로서 한계가 크고 심지어 해롭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바른 믿음이 사람에게 지니는 의미와 가치

첫째, 바른 믿음은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준칙을 형성한다. 종교적 교의이든 어떤 신념에 대한 굳건한 고수이든, 바른 믿음은 우주의 법칙에 부합하는 시비와 선악의 판단 기준을 제공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바른 믿음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파룬궁(法輪功)은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부르며, 지난 세

고 극단으로 치달기를 좋아하며 또한 부정적인 사유에 따라 생각하기를 좋아해 법에서 멀어진 이후 비로소 잘못을 깨닫곤 합니다. 저는 무의식중에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하려 하며, 남의 일에 간섭하려 했고 소유욕과 통제욕도 모두 깨끗하게 수련해 버리지 못했습니다. 일이 자신이 예상한 대로 발전하지 않고 자신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쉽게 짜증을 내고 조급해하며 정력(定力)이 없고 심지어 원망 등 부정적인 사상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 속에서 발버둥 치며 수련해 왔고 지금까지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는데 제게 무슨 자격으로 수련생을 알보고 남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제거하라고 하신 것은 좋지 않은 표현 그 자체이니 저는 마땅히 수련생의 장점만 보고 수련생의 단점은 소홀히 여겨야 하며, 수련생을 이해하고 수련생과 잘 협조해 정체를 원만히 하고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만히 함으로써 신우주의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수련생들과 함께 정진하고 제고해 원만해서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련을 통해 이것이 질투심임을 깨달았고, 이러한 좋지 않은 집착과 명예욕을 내려놓아야만 자신을 제고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2026년 4월은 늦가을로 현지 파룬궁수련자들은 **남아공** 케이프타운 항만청에 첫 번째 파룬따파 공법교습반을 개설했다. 공법을 배우러 온 사람들은 모두 항만청 각 부서 직원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도선사, 재무 담당자, 통제센터와 화물운송사무소 직원 등이 있었다. 사만다(Samantha)는 “현재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다른 공법의 공법교습은 비싸고 효과도 없으며 동작도 어렵습니다. 대법의 동작은 부드럽고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아 우리의 업무와 생활 일정에 잘 맞습니다. 다음 기수 교육에도 또 오겠습니다. 저희에게 대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철도 외근팀의 제시카(Jessica)는 개강 직전 서둘러 달려와 작업복도 미처 갈아입지 못한 채 학습반에 참가했다. 제시카는 연공을 마친 후 “업무로 피로가 쌓이고 비바람을 맞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는데 파룬궁 공법이 온몸을 풀어주고 다시 가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파룬궁과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해외 레지옹인 레위니옹섬은 남반구 인도양 서부, 아프리카 동부의 화산섬이다. 3월 28일, 레위니옹섬은 화창한 햇살 아래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불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생폴 항구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파룬따파수련의 이점을 알리고,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을 상대로 20여 년간 지속해 온 잔혹한 박해를 폭로했다. 중공 정권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알게 된 많은 사람이 굳은 표정으로 자발적으로 서명하며 중공의 만행을 규탄했다. 어떤 이는 “이러한 박해는 충격적이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어떤 이는 중공의 행위가 중국인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

라 전 인류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베로니크 오아로는 원래 근처 시장에 갈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 감동돼 수련자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레위니옹섬에 연공장이 마련돼 있고, 그중 한 곳이 자신의 딸 집 근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파룬따파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녀는 강제 장기적출 반대 청원서에도 서명했다.

3월 28일과 29일, 파룬궁수련자들이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북부 솔나의 건강 박람회(하르모니 엑스포)에서 부스를 설치했다. 평화로운 연공 장면은 바쁘고 소란스러운 사람들로 하여금 평온함과 안녕을 체험하게 했고, 사람들은 수련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거나 엄지를 치켜세우며 경의를 표했다. 수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받으며 발걸음을 멈추고 수련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어떤 이는 파룬궁 수련 방법을 자세히 물었고, 어떤 이는 스웨덴어 온라인 무료 공법교습반에 등록했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대법서적을 구매하는 등 공법에 흥미를 보였다. 특히 일부 젊은이들은 스웨덴 각지에 파룬궁 무료 연공장이 있고, 지금은 온라인 공법교습도 있어 집에서 파룬궁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기뻐하며 “저희는 이 점에 아주 관심이 많습시다”라고 말했다. 그중 한 젊은이는 현장에서 대법서적 ‘파룬궁(法輪功)’ 한 권을 구매한 뒤 손에 들고 애지중지했다. 한 여성은 “이곳의 강력한 에너지가 제 몸을 아주 잘 조절해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효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관념을 품고 일을 하면 약간의 어려움과 시련이 따르게 됩니다. 저는 넓은 규칙을 고수하는 관념이 지혜의 발휘를 가로막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 이는 제가 구속받기 싫어하고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관념을 더욱 뚜렷하게 보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순리에 따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이타적이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정각(正覺)으로 수련 성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우주의 기준이며 정체(整體)를 원만히 하는 것은 더욱이 우리가 해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많은 경우 아직 이를 해내지 못했고 자아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너무 내려놓지 못했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는 기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존경을 받을까요? 아름다움을 남에게 보여주는 사람, 자율적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을 대충대충 하고 인내심이 없으며 남을 알보는 사람이었고 수련 속에서 비틀거리며 온몸에 번거로운 문제를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인 속에서 대법의 아름다운 일면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죄악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부님께서 설법에서 “대법제자들 마난(魔難)을 겪지만 휘멸되는 것은 중생이라네”(홍음3-생생세세 금생을 위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우주 중생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저는 이기적이며, 일을 할 때 사상 속에 경계 의식이 없는 저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사유가 유치하며 성숙하지 못합니다. 저는 편협함을 좋아하

사회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고 게으름, 번거로워하는 마음, 자아에 대한 집착이 빚어낸 것이며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수련생의 모습과 대조하며 저는 곰곰이 안으로 찾았고 자신 역시 이 방면에서 수련을 잘하지 못하고 잘 해내지 못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오랫동안 수련과 가정, 일의 관계를 바르게 놓지 못하고 잘 배치하지 못했는데 이것 역시 안일함과 게으름의 요소가 조성한 잘 수련하지 못한 결과였으며 일의 명확한 분담과 책임 및 사상적으로 명확한 경계 의식과 책임감을 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협조를 담당하는 수련생이 습관적으로 조율하며 일을 할 때 넓은 규정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일에 부딪히면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며 자신이 일, 인원, 및 절차 등을 안배하는 데 집착하면서도 사부님의 신묘한 안배, 즉 다방면에서 자연스러움에 따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자연스러운 작은 변동이 바로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더 좋고 더 합리적이며 원만하게 안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조하며 자신을 안으로 찾았습니다. 제게는 흠잡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이 어떤 방면에서는 수련생보다 낮고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며 남을 가르치려 드는 마음이 있었고, 늘 자아의 사유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 사부님의 자비로운 안배를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안배해 주신 일은 보통 순풍에 돛 단 듯 순조롭게 진행되고 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이뤄지듯 이루어지며 효과도 뚜렷했습니다. 반면 자신이 집착해 무언가를 하려 하면 왕왕 조급하게 서두르다

| 중국소식 |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의 65세 파룬궁수련자 저우촨잉(周傳英)은 2025년 8월 21일 경찰에게 납치돼 줄곧 하얼빈 야쯔취안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저우촨잉은 2026년 3월 18일 다오리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아 징역 7년 6개월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다. 그녀는 현재 항소 중이다. 양전이(楊振義), 저우촨잉 부부는 모두 헤이룽장성 상즈시 웨이허 임업국 퇴직 직원이다.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신념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중공 직원들에게 납치, 구금됐으며 박해를 피해 유랑 생활을 해야 했다. 2025년 8월 21일 하얼빈시 공안국은 대규모 경찰을 동원해 아청구와 샹청구의 파룬궁수련자 20여 명을 납치했다. 양전리와 저우촨잉 부부 등 파룬궁수련자들이 불법 형사 구류돼 모함을 받았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이란현의 고회를 넘긴 천지환(陳繼環)이 하얼빈시 구치소에 5개월간 불법 구금된 후, 2026년 3월 11일 이란현 법원에서 불법으로 3년 10개월형을 선고받고 벌금 5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천지환은 올해 72세로 심장병, 허리와 다리 통증을 앓았고, 왼쪽 고관절염 수술 후 먼 길을 걷지 못하고 무거운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을 스스로 돌볼 수 없었다. 1998년 봄, 44세의 천지환은 다행히 대법 수련에 들어서면서 몸의 고질병이 모두 나았다. 농촌의 무거운 일과 가벼운 일, 집안일을 그녀가 모두 해낼 수 있게 됐다. 천지환은 진선인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3년의 강제노동과 4년의 억울한 감옥살이 등 총 7년간 박해를 받은 바 있다. 2025년 8월 18일 천지환은 다시 동청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와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불법으로 형사 구류돼 하얼빈시 구치소에 구금됐다.

헤이룽장성 다칭시 두얼보터 몽골족 자치현의 68세 파룬궁수련자 우수란(吳淑蘭)은 2025년 7월 30일 경찰의 미행을 받은 후 납치됐고, 이후 부당하게 감금돼 모함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중순, 다칭시 랑후루 법원은 법에 따라 그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에게 2년 6개월형을 부당하게 선고했다. 2026년 3월 말, 그녀는 하얼빈 여자 감옥으로 이감돼 계속 감금돼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더 조사해 봐야 한다.

산둥성 옌타이시 룡커우시 파룬궁수련자 류하이옌(劉海燕)은 2025년 7월 17일 룡커우시 경제개발구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8월 8일 부당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옌타이시 구치소에 부당하게 감금됐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류하이옌은 2025년 10월 말 룡커우시 법원에서 부당하게 5년형을 선고받았고, 2025년 말경 산둥 여자 감옥으로 납치됐다.

2025년 4월 2일, **후베이성** 셴닝시 자위현 파룬궁수련자 천진슈(陳金秀)가 경찰에 납치돼 자위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5월 28일, 자위현 법원은 그녀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고 셴닝시 원취안구에 있는 우한 우중 정신병원과 셴닝 전지탕 중의병원 마약류 중독 치료 연합체인 소위 ‘마약류 치료 재활센터’로 납치했다. 이후 천진슈는 완전히 소식이 끊겼다. 2025년 말, 우한 감옥의 감옥경찰 두 명이 천진슈의 여동생 집을 찾아왔다. 여동생이 천진슈가 어디에 감금돼 있는지 캐물었으나 감옥경찰 두 명 모두 밝히기를 거부하며, 단지 그녀가 3년 6개월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고만 말했다.

랴오닝성 다렌시 77세 파룬궁수련자 청위룽(程玉榮)은 2025년 9월에 납치돼 불법으로 다렌 야오자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6년 2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수련생의 두뇌가 진아(眞我)의 지시를 받지 않고 머리가 관념, 사상업력, 집착심에 조종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자아를 닦아버리지 못하고 집착이 너무 무거워 늘 자신만을 위하고, 남을 위해 배려할 줄 모르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집착해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알고 보니 무의식중의 자아, 사심, 자율적이지 못한 언행은 남에게 예상치 못한 많은 번거로움과 상처를 줄 수 있고 심지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으로 찾아보니 저 역시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자율성이 부족하며 자기중심적이기를 좋아하고 늘 습관적으로 남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부님께서 수련생의 모습을 제게 보게 하신 것은 저의 집착을 확대해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고 제멋대로 하는 행동이 남에게 어떤 번거로움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수련생은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집에 와서 진상 자료를 가방에 넣고 나갈 때면 늘 습관적으로 가방 입구를 열어두었고 엘리베이터 안의 CCTV와 오가는 이웃을 전혀 피하지 않았으며 말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에게 일깨워 주자 그녀는 조건반사처럼 즉시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게 하고 발정념을 해서 보이지 않게 하면 돼요.” 분명히 손으로 가방 입구를 꼭 쥐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녀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런 상태는 정상이 아니에요.”

노수련생의 행동에 제 마음이 동요했을까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속으로 불편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최대한 일반인

의 말이 아주 잘 이해됐습니다. 저는 단 한 명의 수련생과도 조율하지 못하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와 연공을 할 수 없었고 허공을 향해 한바탕 화를 냈습니다.

제 남편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돼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사부님께서 대자비로 그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평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만 외우려 할 뿐 법공부는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속에서 안으로 찾고 그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생각하며 발정념을 한 지 몇 시간 후, 아마도 사부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저와 함께 책을 보며 법공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자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게 된 이상 바로 자신이 수련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고되자 모든 것이 변했고 순조로워졌으며 조화로워졌습니다. 노수련생도 변했습니다. 더욱 이성적으로 변했고 옷차림에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노수련생은 저와 따지지 않았고 저의 잔소리와 날카로운 말씨를 포용해 주었으며 늘 제가 그녀를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수련생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수련생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교통 규칙 지키기를 싫어해 자동차 도로 가장자리에서 스쿠터 타기를 좋아하다가 사고를 한 번 낸 적도 있습니다. 한번은 제가 그녀가 자동차 도로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달려 뒤에 심각한 차량 정체를 일으키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4일 오후, 간징쯔구 법원은 청위룽에 대해 부당한 화상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명확히 지적했다. “파룬궁 수련은 죄가 없으며 진선인에 따라 선량한 사람이 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헌법은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가족은 청위룽이 부당하게 징역 3년 2개월과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았다는 판결문을 받았다. 가족은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네이명구 츠핑시 카라친기의 52세 파룬궁수련자 바이옌빈(白彦賓)은 2025년 9월경 현지 중공 악당 인원에게 또다시 납치돼 모함을 받았고, 불법적으로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네이명구 츠핑시 감옥에 수감돼 있다. 상세한 상황은 조사 중이다. 바이옌빈은 중공 인원들에게 여러 차례 괴롭힘, 가택수색, 납치, 수감을 당했고 어쩔 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며 7년 동안 가족과 모이지 못했다.

원난성 쿤밍시 시각장애인 파룬궁수련자 양샤오밍(楊小明)이 약 보름 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 그녀 집의 철문은 잠겨 있었으나 안쪽 나무문은 열려 있었고 밖에서 집 안이 보였다. 의자는 바닥에 넘어져 있고 책상 위에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혼자 살던 양샤오밍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2022년 5월 28일 오후 양샤오밍은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경찰에게 납치돼 쫓수잉 파출소로 끌려갔다. 경찰은 그녀를 쇠의자에 꼬박 하룻밤 동안 묶어두었다. 사흘째 되던 날 쿤밍시 구치소에서 수감을 거부하자 취保候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으로 집으로 돌려보냈다. 2023년 2월 1일 정오 무렵 쫓수잉 파출소 경찰 여러 명이 양샤오밍의 집에 들이닥쳐 전동 드릴로 문을 부수고 강제로 그녀를 납치해 시산구 법원 구내로 끌고가 부당한 재판을 열었다. 3월 14일 양샤오밍은 부당한 판결문을 받았다. 그녀에게 7년형이라는 중형을 부당하게 선고하고 벌금 2만 위안을 갈취한다는 내용이었다.

| 수련교류 |

법을 실증하는 것을 기점으로 원고모집에 참여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명혜망의 원고모집 통지를 보자마자 저는 스스로 수련도 잘하지 못했고 해놓은 것도 부족해서 딱히 쓸 만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대법 속에서 단련하기만 하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달라지며, 수련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제고되는 부분이 있고 쓸거리도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수련을 잘하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그 중에서 잘 해낸 부분을 찾아 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법공부를 하고 세 가지 일을 잘 해내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모두 이야기이며,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 진지하게 되돌아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빛나는 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교류 원고를 투고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글을 쓰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인데, 주로 안전 문제가 걱정됐고 저 자신을 실증하려는 마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과 집착을 품고 있으니 온전한 이야기를 제대로 써낼 리 만무했고 결과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류 글을 쓸 때는 법을 실증하는 것을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좋은 법을 얻었고, 매일 사부님의 보호 속에서 위험을 모면했으며, 건강을 되찾고 사상도 승화했습니다. 우리는 법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화하고 있으며, 대법의 인도 아래 중생을 구하며 선(善)의 힘을 주변으로 퍼뜨리고 있습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발견하고 그녀를 때리거나 사람 구하는 것을 막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노수련생은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우리집은 그녀가 사람을 구하러 나가는 중간 기착지가 됐습니다. 노수련생은 잔소리가 많고 칠칠치 못하며 제멋대로 행동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으며 남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많은 수련생은 모두 그녀를 싫어했고 사람의 마음이 적은 수련생도 그녀의 이런 모습에 골치 아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녀는 이성적이지 않고, 사소한 예절에 얽매이지 않으며,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고 투박하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수련생은 고생과 수고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너그럽고 도량이 넓었으며 무엇보다도 꾸준히 사람을 구하려는 매우 귀중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집에 올 때 아주 자유로웠고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가족들도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고 저 역시 그녀를 꺼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정체(整體)이고 남을 보며 자신을 수련해야 함을 알았기에 억지로라도 자신을 안으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참을 수 없게 됐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느 기간에는 그녀를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용량을 넓힐 때가 됐고 제고해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속에서 노수련생과 심성 고비를 넘길 때 심지어 무릎을 꿇고 사부님께 간청했습니다. “사부님, 그녀가 저런 모습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자신을 수련해야 합니까!” 저는 이때 매체 책임자가 몇 번이나 바뀌었다는 수련생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을 만나 심신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됐을지라도 한 번도 사부님을 의심한 적이 없었고 대법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과 두려움이 저를 굽은 길로 견게 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설령 제가 1년만 더 일찍 법을 얻었더라도 법리에 명확하지 않아 겪지 말아야 할 고생을 그렇게 많이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도 저는 큰 고생을 겪고 큰 시련을 지나야만 높게 수련된다는 구세력의 치우친 이치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조건 없이 대법에 동화되며 모든 원한의 인연을 선하게 푸는 것만이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해 주신 가장 바른 길임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대법은 우리가 위덕을 수립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법은 제가 무언가를 대가로 치르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이 저를 조화해 주고 있고 사부님께서 우리를 성취시키고 계시며 제가 합격된 법의 입자로 수련돼 대법의 일원이 되게 해주십니다. 시련, 갈등, 고생, 소업, 심성 제고는 제가 신우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에 사부님께서 저를 씻어 주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고난은 저와 제 우주의 중생들이 업을 너무 많이 지은 결과입니다. 사부님께서 매번 시간을 연장하시며 우리가 신우주의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우리에게 제고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듭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래에 제가 안으로 찾고 자신을 수련한 약간의 체득을 사부님과 수련생들께 보고드리려 합니다.

한 노수련생이 저와 협조해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가정 환경을 바로잡지 못한 탓에 감히 진상 자료를 집으로 가져가지 못

니다. “불광이 널리 비치니, 예의가 원만하고도 밝도다.”(전법륜) 우리는 이미 사부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됐고, 대법제자가 될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인생에서 마주하는 심성의 마찰과 고난은 일반인에게는 그저 업을 갚는 과정일 뿐이지만, 대법제자에게는 모두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속세에서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것에는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법제자는 심성이 제고되고 관념이 바뀌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상황이 반전됩니다. 수련이란 바로 우리들의 이 마음을 닦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었는데, 이를 글로 잘 써내어 법을 실증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며, 그들이 구원받는 데 유리하도록 써야 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사회의 그릇된 현상을 바로잡을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욕망이 넘쳐나고 도덕이 극도로 타락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대법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수련하고 도덕성을 높였는지, 또 얼마나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늘 남을 먼저 배려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상을 알렸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이 대비되면 사람들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법을 실증하는 것을 기점으로 삼아 교류 글을 쓰려 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생각도 맑아졌으며, 쓸 내용도 무궁무진하게 느껴졌고 안전 문제 역시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은 현재 제가 깨달은 바일 뿐이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4·25’ 당시 우리는 창안가에 있었다

글/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또다시 이 신성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해 ‘4·25’를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특별히 사부님과 수련생들께 그날의 경험을 보고드립니다.

1999년 4월 24일 토요일,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수련생이 베이징에 가서 법을 수호하고 불법적으로 납치된 텐진 수련생을 구출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가고 싶다면 내일 수련생들이 빌린 차가 어디에 정차하고 몇 시에 출발하는지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집은 연공장이었기에 당일 바로 모든 수련생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3명의 수련생이 꼭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통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알게 돼 입문한 수련생들에게도 즉시 알렸는데 여기에는 양가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때는 농촌에 전화가 아직 보급되지 않았을 때라 어떤 수련생 집은 자전거를 타고 직접 찾아가 알렸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간식과 물통 등 외출 용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4살 딸아이가 평소 학교에 갈 때 챙기는 작은 물통을 우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너도 가려고?”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딸을 데려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6·4’의 목격자로서 우리는 그 피비린내 나던 새벽의 비인도적인 참상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10년이 지났을 뿐인데 그들이 또다시 민중을 학살하지 않을까 우려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법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지만 아이는 아직 인생을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의 길을 걷게 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법을 얻은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원래는 수련의 내포를 알지 못했지만 법 필사는 저를 진정으로 대법 속에 융화되게 해 주었고 불법(佛法)의 광대하고 심오함을 체득하게 해 제 생명이 승화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법 속에서 꾸준히 정진하며 착실하게 수련하려 합니다.

이상은 개인의 인식입니다. 법에 부합하지 않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생을 보며 자신을 수련하다

글/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7년 초 대법을 얻은 대법제자입니다. 아마도 윤회 속에서 업을 너무 많이 지은 탓인지 수련하면서 겪은 고생도 컸고, 수련의 비바람 속에서 저는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사부님께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고비와 큰 난관을 넘기도록 항상 저를 도와주셨고 진흙탕에서 벗어나 광명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위대함과 대법의 신성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 제가 최근에 겪은 작은 수련 심득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비바람을 맞고 비틀거리며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자비롭게 저를 보호하시며 거대한 고비와 거대한 시련을 넘겨

더 담담하게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들과 딸이 모두 외지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명절 때마다 일찌감치 그곳으로 가서 모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오가느라 마음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설날에는 농촌 친정에 한 번 다녀온 것 외에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에서 법공부를 하고 법 필사를 하며 연공과 발정념을 통해 자신을 법 속에 융화시켰습니다. 저는 법에 대조해 자신의 집착을 찾고 자신을 바르게 닦았습니다. 한번은 수련생과 함께 1시간 동안 정념을 발했는데 저는 곧바로 입정했습니다. 온몸이 투명해지고 에너지 흐름이 매우 강하게 느껴졌으며 가부좌를 튼 두 다리가 마치 하나로 달라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 과정 내내 사상이 맑았고 몸이 더없이 편안했으며 조금도 피곤하지 않아 처음으로 발정념의 위력을 체험하고 수련의 느낌을 찾게 됐습니다. 사부님의 가지(加持)에 감사드립니다!

법공부를 잘하자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선한 마음도 우리나라와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사람을 구하는 일도 예전보다 훨씬 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새어머니가 늘 눈에 거슬렸고 아버지가 항상 저를 불러 더럽고 힘든 농사일을 돕게 하면서 새어머니는 고생하지 않게 감싸고도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가짐이 훨씬 좋아져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예전에는 한 번도 돈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날에 친정에 갔을 때 두 분께 각각 200위안씩 드렸더니 새어머니는 돈을 받고 매우 기뻐하며 여기저기서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사부님과 위대한 법이 저를 변화시켜 반본귀진(返本歸眞,

겪어보지 않았고 법에 대한 인식도 얼마나 깊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단순히 구경하러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수련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 마라, 그곳에는 기관총이 놓여 있고 탱크가 매복해 있을지도 몰라. 아빠 엄마가 돌아오지 못하면 너는 고모나 이모에게 가서 살럼”이라고 만류했습니다. 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아요. 부모님도 제가 법을 수호하는 걸 막을 권리가 없어요, 저도 대법의 일원이예요!”

이야기가 이쯤 되자 우리도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의 바지 속에 200위안을 껴매 넣어주며 일러두었습니다. “만약 길을 잃고 흩어지게 되면 이 돈을 써서 집으로 돌아오너라.”

파룬을 보다

베이징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시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작은 천 가방을 들고 계셨는데 그것은 농촌 노부인들의 기본 차림이었습니다. 70세 가까이 사시면서 가장 멀리 가보신 곳이 현 소재지였던 분입니다. 어머니는 같은 마을의 다른 고령 수련생과 함께 자전거를 탈 줄 몰라 현 소재지까지 걸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오전 8시경 우리는 창안가(長安街)에서 차를 내렸습니다. 뜻밖에도 경찰이 우리를 신화문(新華門)의 붉은 담장 밖으로 안내했습니다.[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는 사악한 배후 조종자 뤼간(羅幹)이 쳐놓은 그물망이었습니다.] 속속 도착한 대법제자들은 매우 질서 있게 줄을 섰습니다. 인도 위에서 보도블록 경계선 안쪽으로 규범에 맞게 섰는데 인파는 대략 3~4줄 정도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부모님을 뵈었는데 부모님은 본인들 연공장의 수련생 몇 명과 함께 서 계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크게 소리 내

어 떠들지 않았습시다.(목청껏 말하는 것은 우리 농촌 사람 대부분의 생활 습관입니다.) 모두가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교류했습니다. 낮은 수련생이 알려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맨 앞에 서고 고령 수련생들은 힘들면 뒤에서 앉으세요, 모두 허리에 손을 얹거나 가슴에 팔짱을 끼지 마세요(대항한다는 의미가 있음).”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런 주의사항을 주변에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신화문 동쪽으로 약 30~40미터 떨어진 곳에서 있었습니다(‘4·25’ 자료 화면에 이 지점이 나옵니다). 맞은편 도로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약 3~5걸음 간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구에서 초병이 서 있는 것처럼 미동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거나 담배를 피우고 서로 귓속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군인은 우리 앞으로 다가와 우리가 손에 든 물건을 살펴봐기도 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반면 전국 각지에서 온 남녀노소의 평범한 서민들인 우리 쪽은 조용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서 있었으며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략 9시나 10시경 누군가 “나무 끝을 보세요, 파륜(法輪)이에요, 큰 파륜이에요!”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련생들이 모두 하늘을 바라보았고 다들 보았습니다. 심지어 맞은편 군인 중에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해 질 무렵까지 분명히 중간에 음식도 먹고 화장실도 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서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간식 좀 드세요”, “달걀 좀 드세요”라며 서로 건넸습니다. 화장실은 베이징 수련생들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당시 베이징 골목은 여전히 ‘재래식 화장실’이었고 물을 내릴 수 있다 해도 매우 허름

두려우며 마음의 압박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는 말을 들어요? 법공부 안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더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밤 10시가 다가오자 저는 일어나서 정념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저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생에게 어떻게 이런 말투로 말할 수 있는지, 조금도 선하지 않았습시다. 안으로 찾아보니 제게는 그녀가 제 필사본을 대조해 주기를 바라는 사심이 있었고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의 압박감을 이해해 주거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도록 돕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밤 12시까지 법공부를 하고 싶은 제 뜻을 그녀에게 강요했는데 이는 공산당 당문화의 독단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찾아낸 후 저는 자신을 청리(淸理)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입정했다는 느낌이 들면서 에너지 흐름이 매우 강해졌고 사상이 순정해지며 온몸이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30분 동안 정념을 받고 나니 제 마음도 평온해져 그녀에게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 말투가 불친절했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모두 당신이 아니니 인정하지 말고 정념으로 대하세요. 폭 쉬어요.” 말을 마친 후 저는 혼자 거실로 가서 법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일어났을 때 무척 좋아 보였고 정념도 강해진 것 같았으며 이것저것 두려워하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법공부를 하고 연공하며 정념을 받았는데 호흡이 잘 맞아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법공부와 법 필사가 깊어짐에 따라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법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됐고 세속의 명예, 이익, 정을 점점

작년 선달 23일, 우리 팀의 A 수련생이 남편이 5일 동안 출장을 간다며 우리집에 와서 며칠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침이 기회에 정체(整體)를 형성하고 서로 촉진하며 시간을 내어 법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팀에서 법공부를 마친 후 A는 곧장 우리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저녁을 지어 함께 먹고 6시 정념을 발한 뒤 법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자정 발정념을 마친 뒤 잠자리에 들 생각이었는데 막 ‘전법륜’ 제9장을 다 공부하자 그녀가 잠시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진요지 3’을 공부하자고 제안하자 그녀는 억지로 동의했습니다. 당시 제가 공부하던 것은 막 직접 손으로 필사한 것이었기에 저는 그녀에게 공부를 하면서 제 필사본을 교정해 오자나 누락된 글자가 있는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진요지 3’ 공부가 끝나자 그녀는 곧바로 침대에 누우며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 이른데요!”라고 했지만 그녀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는 마음이 불편해져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이게 법공부를 하러 온 건가? 호강하러 온 거지! 다 차려놓은 밥을 먹으면서 내 시간만 더 빼앗고 있잖아.’ 저는 불만으로 가득 차서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위로 솟구쳤고 화가 치밀어 올라 말하는 말투도 통명스러워졌습니다.

우리집은 방 하나에 거실 하나뿐이라 그녀가 쉬겠다고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잘 수밖에 없어 우리 둘은 함께 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도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며 기분이 영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여러 번 했던 옛날이야기를 꺼내며 어떤 수련생이 자기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보인다고 해서 늘 걱정되고

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으니 얼마나 지저분할지는 짐작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갔을 때 본 광경은 의외로 깨끗했습니다. 변기 주변에는 석회가 뿌려져 있었고 안에도 오물이 별로 쌓이지 않아 방금 청소한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베이징 수련생들이 화장실 밖에서 대기하며 몇 분에 한 번씩 청소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 특별히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10시간을 서 있는 동안 그들은 화장실 밖에서 10시간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대략 오후 4~5시경 신화문 쪽이 떠들썩해지더니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인사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주 총리님!” 또한 주룽지 총리 결의 직원이 “여기 다 모여 있으면 안 되니 대표를 몇 명 파견해 안에서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군가 손을 높이 들며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 갔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군중이 잠시 술렁였으나 곧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격려했습니다. “대표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흩어지지 맙시다.”

우리 보도소 소장님은 60대인 베이징 토박이셨는데 대열 사이를 비집고 오셔서 한 명씩 통지해 주셨습니다. “조금 후에 모두에게 통지할 텐데 해산할 때 창안가를 따라 서쪽으로 가세요, 우리의 집결지는 ○○ 버스터미널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대략 7시경 인파 속에서 수련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서로 전달해 주세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텐진에서 사람들을 석방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바닥의 쓰레기를 주워 가시고요!”

그러자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다들 일제히 허리를 굽혀 자기 발밑의 종잇조각과 음식 찌꺼기를 찾았고, 심지어 맞은편 군인들이 버린 담배꽂초까지 주워 자기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좌우로 즉시 떠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딸아이를 이끌고 양가 어르신들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우리 가족 6명, 즉 제 부모님, 시어머니, 우리 부부와 딸이 서로 바짝 붙어서 서쪽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70세 가까운 세 어르신이 우리의 발걸음을 바짝 뒤따르셨고 어린 딸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신화문에서 ○○ 버스터미널까지 약 8km 되는 거리를 우리 가족을 포함해 길가의 수련생들 모두, 노인과 아이 할 것 없이 도중에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약 1시간 반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다들 전혀 기진맥진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소장님과 조율 능력이 있는 다른 수련생 몇 명이 터미널 관계자와 차량 대여 건을 상의했습니다. 올 때 돌아갈 시간을 몰라 돌아갈 차를 예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이 있는 수련생 몇 명이 목이 쉬도록 전화를 걸어 마침내 터미널에서 대형 버스 5대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베이징 친척 집으로 간 몇 명을 제외하고 우리 현의 모든 수련생이 돌아가는 차에 올랐습니다. 소장님 부부는 베이징에 거처가 있었지만 그분들도 모두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차가 막 출발하자 하늘에서 천둥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천둥 번개가 우리 버스를 동반해 2시간 만에 현 소재지에 도착했습니다. 소장님은 현 소재지 수련생들에게 농촌 수련생들을 집으로 데려가 하룻밤 재워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때 빗방울이 떨어

람을 구하는 일도 적지 않게 했지만 전부 사람의 마음으로 일한 것이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진상을 알렸으나 그들은 진심으로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이 얼떨떨한 미운 오리 새끼 같다고 느껴져 초조한 마음에 사부님 법상 앞에서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저는 어떻게 수련해야 할지, 어떻게 깨달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못난 제자가 너무 어리석은데 어찌면 좋을까요? 사부님의 가지(加持)를 구합니다!”

이후 한번은 정념을 발할 때 머릿속에 ‘순수한 마음, 평온한 마음, 생각을 집중하라’는 몇 마디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공부를 하고 법을 필사하며 정념을 발할 때마다 이 몇 마디 말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각을 집중해 순수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러자 효과가 달라졌습니다. 더는 조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게 됐고 법을 필사하는 글씨체도 단정해졌으며 글자 크기도 일정해졌고 마음도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제게 이렇게 향상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의 머릿속에 있던 일부 부패한 물질을 제거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이후 저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법공부 팀에 참석하는 것 외에 남은 시간에는 혼자 집에서 법공부와 법 필사를 하며 자신을 법 속에 융화시켰습니다. 더는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니며 교류하거나 의견을 나누지 않게 됐는데 그것이 밖으로 추구하는 것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점차 법 필사는 저를 점점 더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고 법리도 볼 수 있게 했으며 문제에 부딪히면 안으로 찾으며 자신을 수련할 줄 알게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다음 날 오전 8시에 노래를 부르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막상 아침 8시가 되자 몸이 불편해져 공연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법공부를 하고 나니 불편한 증상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사부님께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용 휴대폰으로 바꾸고 번호도 교체하며 그 무리에서 단호히 빠져나왔습니다.

예전에 부른 노래가 대부분 공산당 찬양가(홍가)나 사랑 노래였기 때문에 법을 얻은 후 혼자 집에서 법공부를 할 때 사상적 교란이 매우 컸습니다. 심지어 자꾸만 졸음이 쏟아져 눈을 뜨기 힘들었고 온갖 방법을 써봐도 소용이 없어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후 수련생을 따라 법회에 한 번 참석하게 됐는데 수련생들의 발언을 듣고 감격해 눈물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특히 어떤 수련생이 법을 필사한 체험을 이야기한 것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법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법을 필사할 때는 마음이 조급해 분량을 추구하다 보니 스스로 하루에 10쪽씩 필사하겠다고 정해놓고 마치 과제를 완수하듯 했습니다. 2년 동안 ‘전법륜(轉法輪)’을 6번 필사했고 ‘정진요지’, ‘정진요지2’, ‘정진요지3’을 각각 한 번씩, ‘홍음’, ‘홍음2’를 각각 4번씩 필사했습니다. 하지만 오자, 빠진 글자, 누락된 줄이 종종 발생했고 글씨도 좋았다 나빴다 하며 비뚤비뚤했습니다.

저는 법공부를 할 때 시내에 있는 법공부 팀에 참석했다가 다시 친정이 있는 시골 법공부 팀으로 서둘러 돌아가곤 했습니다. 매주 이렇게 오가느라 시간과 체력을 많이 소모했고 마음도 안정되지 않아 늘 사람을 찾아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려 했습니다. 사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집에 도착해 방문을 막 열자마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노동절(5월 1일) 전에 이렇게 큰비가 내린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중난하이(中南海) 밖에 미처 줍지 못한 작은 쓰레기들이 이 큰비에 깨끗이 씻겨 내려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당시 많은 지역의 공안들이 상급 기관의 지시에 따라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간 대법 수련생들을 데리러 갔다고 합니다. 우리 현에서도 차를 몇 대 보냈으나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고, 이 일로 우리 현 공안이 상급 기관의 표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당일 여러 사정으로 청원에 참여하지 못한 수련생들이 그 날 밤 차를 여러 대 모아 우리를 마중 나왔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오는 우리 차량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이 버스터미널의 이름을 숨긴 이유는 터미널 관계자가 우리에게 감동해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4·25’는 일요일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간 대법 수련생 중 학생은 학교 가는 데 지장이 없었고 공직자도 출근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4·25’, 이 위대한 날이 지나간 지 27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회상하면 여전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 생애 위대한 순간을 겪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제자들을 위해 세심하게 안배하고 정성껏 보호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들 수련의 길이 고생스럽다고 하지만 수련 30년에 이 제자는 오직 행복과 끝없는 감사만을 느낍니다!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사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허스(舍十)

중생을 포기하지 말라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생을 포기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구하는 것, 이것은 사부님의 염원이다!

오늘 아침(2026년 3월 15일) 새벽 2시에 꿈을 꾸었는데 한 장면을 보았다. 온 산과 들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서로 밀착해 흠바닥에 뺨뺨하게 앉아 있었고, 땅이 빨갭게 달궈진 깊이가 1m가 넘었다. 속까지 다 달궈진 붉은 땅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속까지 다 달궈진 붉은 인체였으며, 사람의 몸과 땅은 똑같은 붉은색으로 모두 다 달궈진 상태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타들어 가며 모두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빨갭게 달궈진 땅 위에 앉아 있었다.

나와 어린 수련생은 사람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평안하세요! 파룬따파하오! 평안하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도 모두 따라 외치기 시작했다. “파룬따파하오! 파룬따파하오!……” 쉬지 않고 외쳤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외쳤다. 온 공간이 ‘파룬따파하오!’의 외침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났다.

내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외치다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아직 한 무리 사람들이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빨갭게 달궈진 땅 위에 앉아 있었다. 특히 그중에는 11~12세 정도 된 어린 소녀도 있었는데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나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다. 나는 온몸의 힘을 다해

저는 오랫동안 발정념을 해 가짜 나를 해체하고 구세력의 박해를 부정했습니다. 제가 온몸과 마음을 법 속에 녹여내 진선인(眞·善·忍)으로 안에서 밖으로 정화되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안배와 보살핌을 받았을 때, 저는 대법제자의 책임을 깊이 느꼈고 대법을 수호하며 세상 사람을 구하는 신성한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법 사부님께 가지를 청해 사소한 부분부터 자신을 바로잡고 무조건 자신을 수련하며 무조건 법에 동화되어 전심전력으로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법 필사 과정에서 승화하다

글/ 후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대법을 얻은 이후 법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기쁨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나누려 합니다.

저는 2022년 초 농촌 친정에서 대법을 얻은 신수련생입니다. 현지 법공부 팀 노수련생들의 도움으로 두 달 동안 함께 법공부와 연공을 한 뒤 읍내에 있는 우리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와 춤에 능해 여가에는 상업 공연으로 삶을 채우며 부수입도 올리곤 했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온 후에도 연예계 친구들은 여전히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자주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대법을 얻었고 사부님의 제자이기에 사부님께서 수시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을 새롭게 안배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심과 잡념이든 사부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을 실증하려는 마음은 모두 교란을 불러오며 심지어 위험을 초래합니다. 과시심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실증하기 위해 일반 사람의 업무에서 끝없이 야근하며 일을 늘리는 것은 사부님께서 정성껏 안배해 주신 수련의 길을 교란하는 것이며 자신을 수련하고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안배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대법제자가 사명을 실현하는 것을 교란하게 됩니다.

3. 자신을 방임하는 것은 앞길을 망치는 것이다. 평소 스스로 수련인이라고 여기면서도 착실히 수련하지 않았고 수련인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자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인터넷 쇼핑을 몇 번 더 하고 짧은 동영상 몇 개 더 보며 선택지 못한 말을 몇 마디 더 하고 발정념을 몇 번 덜 하는 등 사소한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니 이미 자아라는 이 가짜 나를 살찌워버렸습니다.

점차 가짜 나와 사람 마음, 추구하는 마음에 이끌려 마도(魔道)로 떨어졌고 대법을 이용해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며 자심생마(自心生魔)가 되어 사부님과 대법의 은혜에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저는 오성이 너무나 떨어져 사부님께서 제 행위를 보지 못하고 못 신들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단지 자신을 속이는 문제가 아니라 사부님과 중생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훈은 저를 완전히 깨어나게 했습니다! 정법 수련은 너무나 엄숙합니다. 법공부는 표면적인 뜻을 알아 자신의 행위를 치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의 가장 본질적이고 미시적인 곳에서부터 대법에 동화되는 과정입니다. 수련의 엄숙함을 직시하지 않으면 이 만고의 기연을 잃게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향해 외쳤다. “파룬따파하오! 평안하세요! 파룬따파하오! 평안하세요! 파룬따파하오! 평안하세요!” 이미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소녀는 분명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반쯤 깬 상태에서도 계속 외치다가 정신이 완전히 맑아질 때까지 외쳤다. 나는 놀라서 바로 일어났고 심장이 쿵쾅거리 진정할 수 없었으며 온몸이 거의 떨릴 지경이었다. 당시의 장면은 글로 쓰기는 쉽지만 막상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처참한 광경은 마음을 형용할 언어가 없었으며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처참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온종일 마음이 이렇게 괴로웠다.

아침에 일어난 후 창밖 공기를 보니 마치 큰불이 막 꺼진 뒤의 짙은 연기가 아직 흩어지지 않은 것 같았다. 창문을 열어보니 짙은 연기가 코를 찔렀고 화약 연기처럼 공기 중에 자욱했는데, 이렇게 심한 스모그는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서둘러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빼내 와야 해! 더는 안일해서는 안 되며 더는 사람 속에 빠져 명(名)·리(利)·정(情)에 얽매어서는 안 돼’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이것은 사부님에 대해, 우주 정법에 대해, 중생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처벌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느슨함과 방임으로 인해 중생이 처참한 결말에 이른 광경을 보게 될 때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아직 곁에 있는 친척, 친구, 동창, 이웃, 행인, 시장을 구경하는 사람 등 세상 사람들을 보라. 그들 중 몇 명이나 자신이 진상을 알린 덕분에 진정으로 진상을 깨닫고 구원받았는가? 진상을 알렸고 자료를 보았으며 대법의 자비를 체험했고 교훈도 얻었지만, 여전히 경찰이나 나쁜 사람의 몇 마디 말, 심지어 눈빛 하나에도 겁

을 먹고 쓰러지며 중공 악당을 따라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대법제자를 밀고한다.

지금 사람들은 구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구세력의 교란과 악당의 세뇌로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 끝나지 않았다면 바로 기회다. 꿈속의 일깨움은 나에게 끝나기 1초 전까지도 중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려줬다!

제자는 우리 위대하신 사부님의 호탕(浩蕩)하신 성은을 소중히 여기고, 사부님께서 거대한 감내로 연장해주신 진귀하고 매우 한정된 시간에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며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

사부님의 크나큰 성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우리는 사부님께서 부여해주신 홍대한 자비심을 품고 그들을 구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구해야 하며, 중생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자아를 내려놓고 법 중에서 자신을 바로잡다

글/ 지린성 대법제자 법동(法童)

[명혜망] 저는 최근 수련 중에서 집착을 발견한 것과 어떻게 대법 안에서 바로잡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수련 체험을 써내어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3인 법공부 팀의 결성

최근 1년 동안, 저는 A, B 두 수련생과 자주 함께 법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B 수련생이 메시지함에 자신을 도와 발정념을 해달

이 기간에 사부님께서서는 이 못난 제자를 자비롭게 거듭 일깨워 주시며 많은 경고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우쭐해 있던 며칠 동안 길을 걷다가 엎어졌는데 다친 곳은 없었지만 너무 심하게 넘어져 동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집 책상 위에는 벽걸이 수납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팽창 볼트가 느슨해져 수납장이 “꽝” 하고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부님의 보호로 책상 위의 컴퓨터 두 대를 덮치지 않았고 큰 수납장은 단번에 의자 위로 튕겨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라워하며 “컴퓨터가 어떻게 멸절할 수 있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중대한 고비였고 저를 사악한 요소에게 박해받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련은 너무나 엄숙합니다!

이번 고비를 넘기며 제 수련의 근본 집착이 드러났습니다.

1. 왜 수련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수련하는가? 사부님과 대법을 믿는가, 아니면 자신을 믿는가? 자신이 대법을 수련해 이득을 얻고 일반 사람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함인가? 내 수련 경지는 어디까지인가? 나는 도대체 수련인인가? 법에 입각해 진정으로 대법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수련을 논할 수 없고 대법제자의 천직을 이해하거나 해낼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수련하는지 알고 자신을 진정한 수련인으로 여겨야만 지속적으로 정진할 동력을 얻어 모든 두려움과 사람 마음의 교란을 제거하고 자신의 환경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며 진상을 잘 알릴 수 있습니다. 대법은 끝이 없으니 대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경하거나 믿지 않거나 자신을 실증하는 것은 모두 죄업이며 모두 난관을 불러옵니다.

2. 오직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수련의 길만 걷는다. 대법제자는 일반 사람 속에서 수련하며 사부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수련의 길

를 깨닫지 못했고 집착심은 아주 자연스러울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충동적으로 가짜 나의 지시에 따라 사장님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는데 겉으로는 건의를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다시 한번 자신을 실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저는 번쩍 정신이 들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몹시 불안했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야 이 가짜 나가 이미 끝없이 팽창해 있었음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엮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안으로 찾은 뒤 저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건의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즉시 실행을 추진했고 저를 여러 프로젝트 팀에 끌어들였으며 향후 더 중요한 업무도 제게 맡기려 했습니다. 저는 더욱 후회했습니다. 원래는 그저 제안 하나 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제 본연의 질서 있던 업무를 모두 흐트러뜨릴 줄은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제 직속 상사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 본분만으로도 일이 적지 않은데 왜 스스로 일을 더 만들어요?” 수련자는 사람 속의 성공을 도모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나머지 모든 힘을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데 전심으로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법이 부여한 모든 것을 이용해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을 실증하며, 과시심과 자아를 실증하려는 마음에 이끌려 구세력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외부의 인정과 조명 아래의 허영심을 원하지 않았는가? 다 주겠다. 네가 능력이 있으니 모두가 너를 끌어다 일을 시킬 것이고 너는 야근하느라 바빠 수련과 사람 구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 이것이 단지 집착심을 제거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대법을 이용해 자신을 실증한 것으로 참으로 스스로 앞길을 망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병업 가상이 심해졌고, 제가 가서 그녀를 좀 봐주길 바랐습니다. 제가 가서 B 수련생과 교류하던 중, B는 제게 불만을 드러내며 제가 말하는 것이 매우 강경해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속인에게는 잘하면서 수련생에게는 선하지 않다고 했으며, 제가 너무 강경하기에 A는 많은 때 자신을 억누르며 감히 제게 진실을 다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저에게 맞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B의 말은 제게 뜻밖이었고, 마치 제게 맹렬한 일격을 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제 심성에 문제가 생겼기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음을 의식했습니다.

저와 A, B 수련생이 함께 법공부를 하게 된 것은 우선 A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보느라 수련생들과 법공부를 하고 교류할 환경이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찾아와 자신의 집에서 함께 법공부하기를 바랐고, 그래서 저는 매주 만나질의 시간을 내어 A와 함께 법공부를 했습니다. 이후, B 수련생에게 병업 가상이 나타나 한동안 돌파하지 못해, 제가 자주 가서 그녀와 함께 법공부하고 발정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B의 상태가 조금 좋아지자 저는 그녀의 의견을 물어, A의 집으로 와서 법공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3인 법공부 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법공부를 마친 후, 우리는 자주 법에서 교류했습니다. A, B 두 수련생은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 똑같이 곤경에 처해 있으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A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 중 하나는 “너무 힘들어요, 수련이 어찌면 이렇게 힘든가요”였습니다. 오랫동안 가정의 자잘한 일에 빠져 있다 보니 A의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아, 가부좌를 한 지 몇 분도 안 돼 다리

가 미끄러져 내려왔고, 법공부를 할 때 즐겼으며, 발정념을 할 때 정신이 흐릿하고 손바닥이 넘어갔습니다. B 수련생은 막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녀 또한 병든 어머니를 여러 해 동안 돌보느라 법공부, 연공, 진상 알리기를 따라가지 못해 신체에 바르지 못한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마침 이때 그녀는 수련하지 않는 가족과 갈등이 생겨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신체의 바르지 못한 상태는 더욱 심각해져 걷는 것조차 매우 힘들었습니다.

처음 법공부 팀을 구성한 목적은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수련의 길을 함께 잘 걷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수련생에 대해 책임진다는 마음에서 저는 제가 본 수련생들 수련에 존재하는 부족함을 지적해 줬는데, 예를 들면 정념으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 고생을 겪으려 하지 않는 것, 이익심, 안일심, 원망심 등이었습니다. 수련생들이 하루빨리 제고돼 올라오도록 돕기 위해 저는 사부님의 관련 경문과 명혜망 수련생들의 교류 문장을 사이트 내 메시지함에 붙여넣어 수련생들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수련생들의 변화는 크지 않았고, 심지어 끊임없이 그 집착스러운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련생이 많은 방면에서 사람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수련생을 위해 조금해졌으며, 때로는 참지 못하고 수련생을 질책하기도 했는데, 한번은 뜻밖에도 B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저는 자신이 이미 수련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음을 인식하고 수련생에게 사과했지만,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B와 A의 그러한 무력함을 보고서 저는 제가 이미 수련생에게 고통과 상처를 줬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디가 법에 부합되지 않았을까요?

회의를 준비할 때 저는 핵심 과제팀으로 배정돼 몇몇 중고위층 간부들과 함께 토론하게 됐습니다. 이후 그들은 저를 추천해 팀 발표를 맡겼습니다. 저는 그들이 일이 많아 제게 구체적인 작업 발표를 맡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책임을 회피하지도 자만하지도 않고 그저 한뜻으로 일을 잘해내고자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사한 후 저는 과제의 문제점이 제품의 가치관과 포지셔닝이 명확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연공하며 가부좌를 할 때 여러 생각이 떠올랐고 낮에 과제 문제에 관해 사람들과 공유하자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계속 야근하며 시간과 마음을 모두 회의 준비와 과제에 쏟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과제를 정리하는 데 몰두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점점 자신의 생각을 실증하는 데 집착했고, 스스로 제품 품질을 높여 사장님이 저를 괄목상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자아를 실증하려는 것은 겉모습이 비슷하지만 진정한 동기가 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는 오직 대법에 비추어 가늠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회의 당일 각 업무 책임자들이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제가 업무 발표를 마치자 동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제 발표가 훌륭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회의 내내 적극적으로 토론과 발언에 참여했고 자아를 실증하려는 마음은 급속도로 팽창해 수년간 승진하지 못하고 중시 받지 못했던 사람 마음이 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이 ‘가짜 나’는 더욱 우쭐해져 자신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며 마침내 지도층 앞에서 능력을 드러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이 가짜 나에게 통제되고 있으면서도 이

자아를 실증하려는 마음과 과시심을 직시하고 법 안에서 바로잡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청년 대법제자입니다. 정법 수련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최근 명혜망에 여러 수련생의 글이 게재되어 정법 수련의 엄숙함과 긴박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수련하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구하는 긴박감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며 일과 생활 속에서 일반 사람과 비교했고 자신이 똑똑하고 유능하며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 남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안일심 또한 자신도 모르게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얕은 층에서 안으로 찾았을 뿐 법에 입각해 인식하고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최근 자아를 실증하려는 마음과 과시심으로 인해 연이어 난을 불러와 근본 집착이 노출되고 나서야 수련이 얼마나 엄숙한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번 교훈은 칭찬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전체 회의를 앞두고 사장 비서가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번엔 발언 기회를 많이 주실 거예요. 사장님이 당신 능력을 매우 인정하시니 기회를 잘 잡아 많이 보여주세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온 뒤에도 이 말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향상과 변화가 대법이 부여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결코 하늘의 공을 탐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선적이며 자아에 집착하다

안으로 찾으면서, 저는 자신에게 자아에 집착하는 아주 강한 마음, 즉 독선적인 마음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매우 깊이 숨어 있어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깨달았는데, 자신이 평소에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지 않았고 때로는 자신이 아주 못 닦았다고 느껴 잘 닦은 수련생을 진심으로 경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교류도 자신과 가까운 수련생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어쩌면 수련생과 가까웠기에 경계심이 부족해져, 때로는 말이 비교적 직접적이고 마음대로 나갔을 수 있습니다. 수련생의 명백한 부족함을 보면 지적해 주고 싶었고, 자신이 솔직하며 출발점은 수련생을 위한 것이기에 악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생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았고, 특히 수련생이 법에서 인식해 올라오지 못한 것을 발견하면 말투가 강경해져 기어코 상대방이 자신의 인식을 인정하게 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다른 일 하나가 생각났는데, 제게는 오랫동안 고정적인 법 공부 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은 법공부를 마치고 다 함께 교류할 때, 우리 팀이 아닌 그저 가끔 일이 있어 들르는 수련생이 C 수련생에게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C는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그 수련생에게 안으로 찾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수련생의 말이 틀리지 않았고, C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집착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제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C는 제 태도 표명 때문에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거부했습니다. 이후, 제가 팀의 D 수련생과 이 일을 교류했을 때, D는 그녀가 보기에 제가 당시 개인적으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련생의 부족함과 집착을 마주할 때, 제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을 닮는 것을 소홀히 했음을 인식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일의 표상을 따라 자신을 반성하기도 했고, 같은 종류의 문제에서 마음 닮는 것을 중시하기도 했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경우, 여전히 인식하는 데 머물렀을 뿐 자신을 더 깊이 찾아보고 실제적으로 닮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련생이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조급해하고, 수련생의 부족함이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의 견해와 인식을 표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를 솔직하다고 여겼는데, 어쩌면 속인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장점일 수 있겠지만, 수련인은 마땅히 더 높은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이 수련생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수련생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지 결코 수련생을 해치려는 생각이 아니라고 여겼는데, 어쩌서 상대방을 감동하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남에게 불쾌감과 압박감을 가져다줬을까요? 어쩌서 D는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시각에서 수련생의 문제를 대한다고 말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어쩌면 자신에게 장기간 존재해 온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에 대조해, 저는 자신이 대부분의 경우 개인적인 이익의 각도에서 수련생을 가늠하고 판단했으며, 또한 말 속에 개인적인 관념과 정서가 섞여 있어 한 말이 순수하지 못해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주요한 것은 자신이 타인을 위해 생각하는 마음을 닦아내지 못해, 타인의 각도에 서서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고 남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못해, 할 말을 직접 할 줄만 알았지 좋게 말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수련생의 문제를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책을 읽은 지 3개월 후, 이 다리는 이미 아프지 않았다. 17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장애 다리가 법공부를 한 지 6개월 만에 완쾌됐다. 지금은 양쪽 다리가 똑같다. 사부님께서 신선을 보내 내게 대법서적인 ‘전법륜(轉法輪)’을 전해주셔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나는 지금 매일 진상을 알리며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이 신기한 일을 알고 있다. 겨울에는 농사일이 없어 시골 사람들은 따뜻한 구들방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한담 나누기를 좋아한다. 나는 그들에게 대법 진상을 알려주고 나의 기이한 만남을 이야기해 주는데,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한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도와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해주어 사람들이 중공을 멀리하고 재난을 멀리하게 한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대법의 법리로 그들의 마음속 매듭을 풀어주어 기본적으로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명백히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사부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이며, 나와 인연 있는 이 중생들은 모두 사부님께서 구원하라고 안배해 주신 분들이다.

사존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더욱 큰 자비를 닦아내어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며 더 많은 사람을 구하려 한다.

돌아와 책을 펼쳤다. 그런데 정말 대단했다. 책에서 오색찬란하고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고, 모든 글자 뒤에 또 글자가 있었으며 모든 글자가 움직였다. 움직이는 글자들은 마치 칠색 호수 빛처럼 가운데에서 방사형으로 확대됐고 다시 가운데에서 방사형으로 확대되며 겹겹이 커졌다. 글자 뒤에 또 글자가 있고, 또 있고, 또 있었다. 인간의 언어로는 정말 형용할 수 없었는데 겹겹이 끝이 없었다. 이 광경을 보고 나는 책을 내려놓고 서둘러 밖으로 달려 나가 할머니를 쫓아가서 자초지종을 묻고 싶었다. 남편은 “어딜 쫓아가? 벌써 못 따라잡아”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할머니 한분을 내가 못 따라잡는다고!’라고 생각했다. 시골은 모두 단층집이라 사방이 탁 트여 있어 한눈에 다 보인다. 하지만 동서남북을 다 뛰어다녀 보아도 나는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속 책을 읽었다. 3~4일쯤 읽었을 때 내 다리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내복 바지를 벗어 몇 번이고 털고 또 털며 자세히 찾아보았지만 벌레는 없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소란을 피웠다. 이런 현상은 3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책만 보면 마치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았다. 나는 오성(悟性)이 부족해 이것이 사부님께서 내 신체를 조정해 주시고 업력을 소멸해 주시는 과정임을 알지 못했고, 그저 할머니가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만 기다렸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나중에 할머니가 왔고 나는 이런 현상을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게 맞아요. 대법 사부님께서 당신을 돌봐주시는 거니 계속 읽어요. 책을 잘 보관하면 당신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할머니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짐과 어떤 방식을 선택해 써야 하는가이며, 수련생에게도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수련생은 사람이 닦는 것이지 신이 닦는 것이 아니며, 특히 곤경에 처했을 때 수련생은 더더욱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고 정념으로 수련생을 대해야 합니다. 구세력은 바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할 뿐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데, 생각해보니 자신의 이전 사유 방식이 구세력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부님께서 “수련인이 안에서 찾는 이것은 법보(法寶)이다” (각지 설법9-2009년 워싱턴DC 국제법회 설법)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련인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모두 자신을 보고 자신을 닦아야 하며, 수련생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자신을 일의 밖에 두어서는 안 되고, 가장 먼저 마땅히 안으로 찾아야 하며 반드시 내가 닦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수련생의 부족함은 바로 제 부족함일 것이며, 마땅히 자신에게도 정도는 다르지만 이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일 겁니다. 수련인은 오직 자신을 닦는 몫만 있을 뿐, 기어코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은 남을 통제하려는 중공 악당 문화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깊이 찾아보니 그 속에는 또 과시심, 자아를 실증하려는 마음, 남의 스승 노릇 하기 좋아하는 마음, 남을 얕보는 마음 등 다른 좋지 않은 마음들도 연관돼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일념을 지켜보며 마음 써서 착실히 수련하다

이전에는 착실한 수련에 대한 개념이 그리 또렷하지 않아 그저 입으로만 말했을 뿐 행동상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착실히 수련한다는 것이 바로 자신의 매 하나의 사상과 일념, 나아가 행위까지 지켜보다가 사상과 행위에 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을 발견하면

가서 배척하고, 제때 법 안에서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라 여깁니다.

어느 날, 명혜망 중국 종합소식에 현지 파출소와 주민센터 직원이 A를 교란하고 박해한 사실을 폭로하는 글이 실렸는데, 폭로된 사건은 모두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었고, 글은 A의 한 직장 동료 수련생이 쓴 것이었습니다. A는 두려운 마음과 압박감이 생겼고 부정적인 사유가 매우 강해져 사악이 집으로 찾아올까 봐 두려워했는데, 그날 법공부를 할 때 심신이 불안해 기본적으로 법이 머리에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마음을 겨냥한 듯, 그날 주민센터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복도 위생에 관한 일을 물었습니다. A는 더욱 긴장했고 의심과 우려하는 마음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교류했습니다. A는 먼저 폭로 글을 쓴 수련생을 원망했는데, 예전 같으면 저는 기탄없이 A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한 후 사부님의 법을 인용하고,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맨 처음, 저도 확실히 그렇게 생각했고 A가 사람 마음으로 문제를 본다고 여겼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금 A가 두려운 마음에 휩싸여 있고 또 아주 강한 원망심이 있으니, 그녀의 이런 상태는 구세력이 빈틈을 타기 쉽다’라는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B 역시 팀의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겼으며 간격은 사악에게 가장 빈틈을 타기 쉽다고 느꼈는데, 그녀는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대법제자는 사람이 수련하는 것이며, 사람이 수련하면 집착이 있게 마련이고 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사람 마음이 있고 집착이 있다고 해서 마땅히 박해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철이라 집안 농사일을 다 해내지 못할까 봐 마음이 무척 급했다! 집안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매일 꼭 참고 농사일을 해야 했다. 바쁜 일이 다 끝난 뒤에야 하얼빈 의과대학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 그곳에 도착해 진찰을 받으니 의사는 “이미 너무 늦게 왔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근육이 이렇게 위축됐으니 치료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이 다리는 지금까지 나를 17년 동안 괴롭혔다. 날이 흐려 비가 오거나 습한 곳에 있으면 내 다리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팠다. 농사일을 할 때는 꿩이에 몸을 의지했고, 쪼그려 앉아 일해야 할 때는 발을 기어 다니며 고구마 덩굴을 다듬고 일을 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이 17년 동안 세상의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었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줄곧 나를 쳐다보더니 나에게 “내게 당신 다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고치고 싶나요?”라고 말했다. 나는 기뻐하며 “당연히 낫고 싶죠”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새댁, 내게 책이 한 권 있는데 당신이 감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라고 말했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미친 듯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었다.) “못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제 다리가 이 지경인데요.” 그래서 그녀는 작은 노란 천 주머니를 꺼내 열어 보여주었는데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내가 넘겨받아 보니 텔레비전에서 말하던 그 파룬궁 서적이었다. 나는 책을 훑어보며 “이 책 참 좋은 내용 같은데 왜 반대를 받는 걸까요?”라고 말했다.

그때 할머니는 밥을 다 먹고는 무심한 듯 한마디 던졌다. “보고 싶으면 책을 남겨둬요. 어쩌면 당신 다리가 나을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책을 남겨두었다. 나는 할머니를 대문 밖까지 배웅하고

‘전법륜’을 읽고 17년 된 장애 다리가 회복되다

글/ 헤이룽장성 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어느 날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옷 몇 가지를 빨았다. 시골에는 더러운 물을 대문 밖에 버려 하수구를 따라 흘러보내는 습관이 있다. 물을 버리러 나갔다가 대문 앞 흙더미에 앉아 있는 한 할머니를 보았다. 내가 다가가서 “비가 막 그쳤는데 거기 앉아 계시면 너무 습하지 않으세요?”라고 말을 건네자 할머니는 “내가 너무 힘들고 또 배가 고파서 그래요”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서둘러 할머니를 집 안으로 모셨다. 집 안으로 모신 후 나는 주방으로 가서 할머니가 드실 식사를 차렸다. 마침 그날 우리집에 왔던 손님이 막 떠난 참이라 다행히 음식이 아직 식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음식을 내오며 할머니에게 “어서 드세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밥을 먹으면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걷는 모습을 보고 왜 한쪽 다리를 끌고 다니는지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간의 경위를 들려주었다. 30대 때 나는 이 다리를 못 쓰게 됐다. 그해에 일을 하다가 우리집 채소 저장고 입구를 지나는데 실수로 떨어지면서 한쪽 다리가 저장고 입구의 앵글에 끼어버렸다. 아주 꽉 끼어서 나 혼자서는 도저히 빼낼 수 없었고 뼈를 깎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마침 이웃집 형님이 우리집에 놀러 왔다가 내가 거기에 끼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리를 빼내 주었다. 나는 당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바지를 걷어보니 다리 전체 피부가 앵글에 긁혀 거의 다 벗겨져 있었다. 나는 손으로 피부를 밀어 올리고 눌러보았지만 통증을 참기 힘들어 진통제를 좀 바르고 거즈로 다리를 감쌌다. 그때가 마침

수련 중에 어떤 일이 생기든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보느냐, 사람 마음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정념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안으로 찾을 수 있고 수련인의 마음가짐으로 대하며 끊임없이 법 안에서 자신을 바로잡기만 한다면, 교란과 갈등은 해소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가 승화하고 길을 닦는 계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저는 시야가 확 트였고,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상유심생(相由心生)’의 법에 대해 더 깊은 이해가 생겼습니다. 저는 사실 수련인이 박해를 받고 교란을 받을지 여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관건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공부와 교류를 통해 저는 법리상에서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하지만 A 수련생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는데, 이때 저는 수련생을 배려해야 하며 자신의 인식을 그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그녀에게 어떠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저 자신을 돌이켜보니, 수련생에게 두려운 마음과 원망심이 있다면 틀림없이 자신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존재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이 층층이 제거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면에서 체현됨을 발견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진상을 알릴 때 아무에게나 다 알리지 못하고, 인상이 선량해 보이고 안전한 느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것 역시 두려운 마음과 자아를 보호하려는 마음이며, 잠재의식을 깊이 파보면 여전히 구세력의 박해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묵인하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망심은 어떨까요? 저는 수련생이 제게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특히 A가 사석에서 다른 수련생에게 저에 대해 불평한 것을 알았을 때, A가 대면해서 제게 직접 말하지 않고

등 뒤에서 남을 논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과 원망이 생겼지만, 본성의 일면이 곧 이것은 사악이 이런 좋지 않은 사람 마음을 이용해 저와 수련생 사이의 간격을 벌리려는 것임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어코 그 좋지 않은 마음을 배척했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동수를 원망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좋지 않은 마음이 때때로 또 불쑥 튀어나왔고, 저는 끊임없이 배척하며 가급적 수련생의 장점을 생각하려 노력했으며, 자신의 독선적이고 자아에 집착하는 것으로 인해 수련생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생각하자 어려움 중에 있는 수련생에게 매우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기간에 저도 여러 차례 수련생들과 교류하며 진심으로 A, B 수련생에게 사과했고, 자신이 이전에 잘하지 못해 그녀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조성하고 그녀들에게 상처를 입혔음을 인정했습니다. 몇 차례, A는 또 제 앞에서 그 폭로 글을 쓴 수련생을 불평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녀가 제게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며, 제 원망심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내 A는 잘못됐음을 의식하고 즉시 “어째서 원망심이 또 나왔지,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아, 원망심은 죽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안으로 찾는 동시에 수련생도 안으로 찾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는데, 수련은 정말 오묘해서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우리 자신의 수련 상태는 직접적으로 남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체가 모두 제 수련을 돕고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B가 제게 의견을 제기한 이후, 우리는 메시지에서 교류했는데, 그녀는 또 몇 차례 보충 의견을 제기하면서 말투가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서신을 본 이후 제 첫 반응은 수

련생에게 감사하는 것이었으며, 저는 수련생이 제게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도록 돕고 있고 저를 채찍질해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게 하고 있음을 의식했습니다. B가 제가 때때로 그녀와 말할 때 뇌를 거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존중과 동정심도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후 마땅히 가급적 일에 부딪혀 말할 때 상대방의 각도에 서서 타인을 더 많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남의 기분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합니다. 수련생이 제가 이기적이고 강경하다고 한 것은 저에게 겸손함이 부족하고 수련인의 자비로운 흥금을 닦아내지 못했음을 설명하므로, 저는 겸허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매일 묵묵히 곤경에 처한 수련생들을 위해 발정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응당 수련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여깁니다.

제가 조금씩 이렇게 실천해 나갈 때, 저는 끊임없이 주변 수련생들에게 있는 빛나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수련생 사이의 성스러운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됐으며, 사존과 법의 위대함을 더욱 느끼고, 저 자신의 비천함과 보잘것없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존께, 그리고 자신에게 ‘나는 수련을 잘해 자신을 고수하지 않고 일체 사람의 것을 내려놓으며, 법 안에서 자신을 깨끗이 씻어내어 수련의 길을 바르고 잘 걸어 사부님의 자비롭고 고생스러운 제도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제 개인의 이 층차에서의 인식으로, 법 위에 있지 않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